

지난달 26일자 8면 머리기사(직장 가진 여성, 최고 신부감)를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기사에서는 요즘 남성이 직장 가진 여성을 신부감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상당히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런 성향이 순수한 뜻

가진 아내는 혼자서 산더미 같은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에 시달리며 직장일까지 해내야 하는 3중고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취업한 아내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큰 양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의 분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미혼 남성들도 있다는 것을 미혼인 내 동생에게서 듣기도 했다.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해내느라 지쳐 있는 아내와 물질적

‘맞벌이 신부감 선호’ 긍정평가 직장·가정 고달픈 여자쪽 외면

에서가 아니라 남성의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남성이 아내의 취업을 반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내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기 계발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남성 자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원하는 것이라면 상대 여성의 행복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실제 맞벌이 가정에서 파출부가 있거나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직장

여유와 풍요로움을 즐기는 남편, 그것은 교묘하게 왜곡된 맞벌이 가정의 불평등 구조에 다름아니다. 여성의 해방과 진정한 평등을 위해 남성들의 솔직한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여성이 가정을 이룬 뒤에도 일로써 얻는 성취감을 진정 얻을 수 있도록, 특히 미혼 남성의 의식변화를 기대한다.

박진주 <충북 청주시 수곡동 세원아파트 1차 나동 308호>